

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이유*	학번	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캘리포니아 Redding
파견대학	Shasta College	기간	2016.06.26. ~ 07.16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대학은 우리학교와 같이 도시와는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있어서 식당이나 쇼핑물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차를 타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. 하지만 학교자체 규모가 넓고, 기숙사나, 식당, 수영장 등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중에 학교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
Hospitality Class	제대로 된 관광경영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될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업자체가 조금은 쉽게 진행되고 인원에 따라 조를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처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, 솔직히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교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서 일단 의사소통 자체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.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, 가면 갈수록 답답하게 느껴지고, 제 영어가 그렇게 형편없나,,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잘 알아듣는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,, 아무튼 여러모로 별로인 수업이었습니다,
Computer Class	일단 컴퓨터수업 교수님자체가 너무 친절하시고, 학생들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셨고, 매 수업시간마다 수업과제를 제출해야하는데,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1대1로 친절히 알려주셔서 컴맹인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업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일정 상 엑셀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배울 수 없었지만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엑셀사용법과 wordpress라는 웹사이트 제작에 관해서도 배워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

필드트립	<p>일단 모든 필드트립에 있어서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. (단, 개인 기념품, 간식비 등 제외) 필드트립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데, 그중에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액티비티도 포함되어있으니 수영복은 반드시 챙겨 가지고, 샌프란시스코는 레딩에 비해 훨씬 기온이 낮아서 여행 중 추위에 떨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긴 반팔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</p>
----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레딩의 날씨는 40도를 육박할 정도의 높은 기온을 가지고 있지만,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찌는 더위가 아닙니다. 하지만 낮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꼭 바르고,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기를 권장합니다.</p>
안전	<p>우리나라처럼 밤늦게 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늦게 시내를 돌아다닌다던가 숙소를 벗어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
숙소	<p>기숙사 시설이 정말 쾌적하고 좋아서 지내는 데에 불편할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.</p>
식사	<p>학교식당 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) 외부식당 () 기타 (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무래도 주중에는 학교 수업 때문에 학교에 계속 있다 보니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,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매일매일 제공되어서 다소 기름지고 짭 음식이 있더라도,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</p>

교통	<p>레딩은 교통이 정말 안 좋습니다.</p> <p>교수님들께 부탁하면 시내까지 바래다주시긴 하지만, 매번 부탁드리기가 미안해서 저와 제 친구들은 학교에 1시간에 1번씩 오는 시내버스나 콜택시를 불러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.</p>
----	--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 단위:원

※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.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왕복 항공료	1,560,300	국내 납부
보험료	16,750	국내 납부
쇼핑	400,000	체크카드 사용
식비	200,000	체크카드 사용
합계	2,177,05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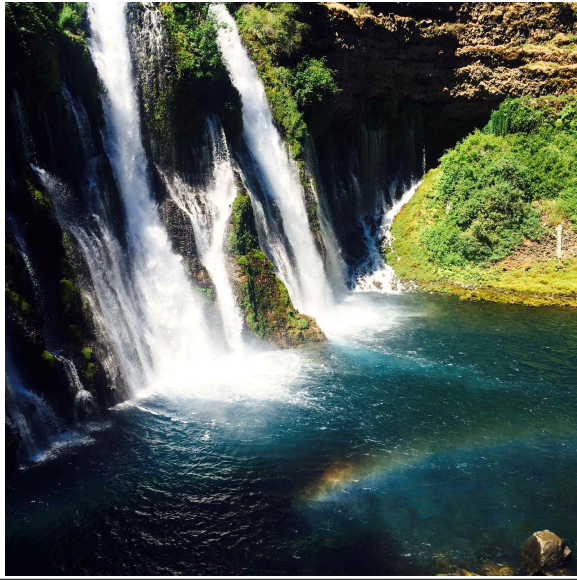
저는 가기 전에 현지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 유심칩을 미리 구매하여 갔는데, 확실히 시내에 나갈 때 같이 간 친구들과 연락하기에도 용이하고, 비상시에 현지 교수님들과 연락하기에도 쉬워서 유심칩을 사서 미국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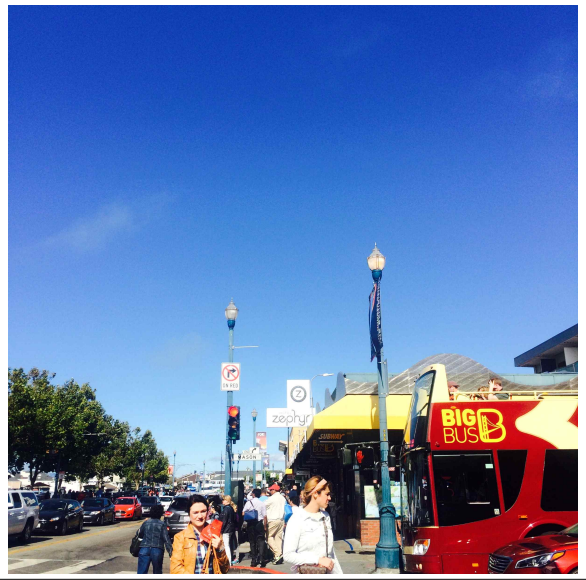
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프로그램인 것을 잘 알고 신청을 했기에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학교 수업이 내 예상과 맞지 않아도 크게 절망하지 않았고, 나름 재미있게 3주를 잘 보내다 온 것 같습니다. 일단 살면서 미국의 레딩 이라는 도시를 알고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일 수도 있는데,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난생 처음 들어본 도시를 가보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, 단순한 여행이 아닌, 미국의 대학교에서 3주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잠시나마 미국의 대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 3주였습니다. 미국에서의 3주는 단순히 관광경영에 대해서 배워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고,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심각한 컴맹이었던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컴퓨터 수업을 통해서 계속 미뤘던 컴퓨터 공부를 시작해볼 예정이고, 지금은 영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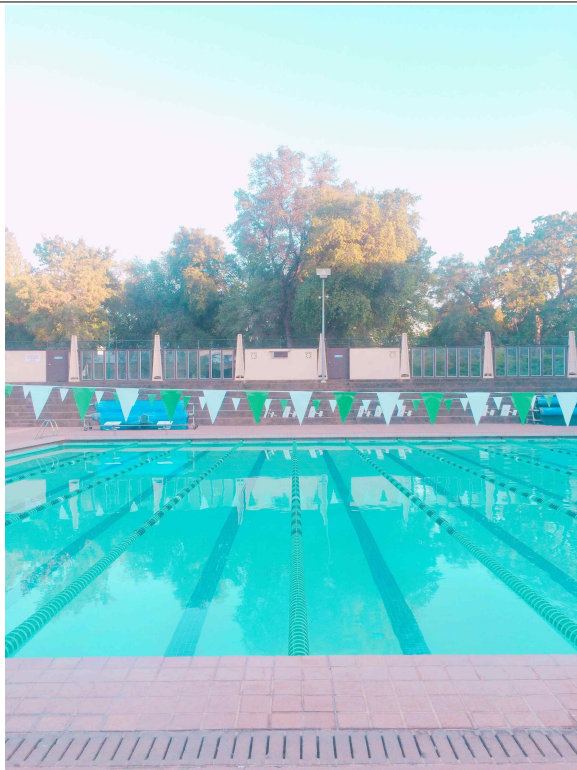
	
<p>올리브공장 필드트립</p>	<p>위스키타운 레이크 필드트립</p>



버니 폴 필드트립



샌프란시스코 필드트립



교내 수영장



수료증